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중동 불안, 금리 상승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7일(월) 미국 증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 4%대 상향 돌파,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전반적인 위험선호 심리가 위축되며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한 결과 3대지수는 하락 (다우 -0.94%, S&P500 -0.96%, 나스닥 -1.18%)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여전히 고용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위험 요인은 고 인플레이션에서 실업을 상승으로 이동했다고 언급. 한편,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동시에 빅컷(50bp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고 고용시장이 일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금번 50bp 인하에 대해 찬성여사를 표시한 이유라고 답함.

한편, 미국채 2년물, 10년물 금리는 이 날 4%대를 상향 돌파.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둔화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는 점이 미국채 금리 상승의 주된 요인. 현재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1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13.9%, 25bp 인하 확률은 86.1%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주까지 시장 내에 잔존했던 추가 50bp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M7 종목 중 엔비디아(+2.24%)만이 유익하게 상승하였고 애플(-2.25%), 마이크로소프트(-1.57%), 알파벳(-2.24%), 메타(-1.87%), 아마존(-3.06%), 테슬라(-3.7%)는 하락.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정학적 긴장감 지속에 WTI 유가가 77달러까지 상승한 가운데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은 에너지(+0.4%)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임. 또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대로 급등하며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엔비디아 상승에도 불구하고 0.19% 하락.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것은 지수 레벨 및 속도 부담에 따른 숨고르기 영향도 있겠지만, 10년물 금리 상승의 부담도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 이는 지난 금요일 9월 고용 서프라이즈가 골디락스, 노랜딩 전망을 수면 위로 다시 부상시킴에 따라,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데서 기인(Fed Watch 상 11월 금리 동결 확률은 일주일전 0%에서 현재 13%대로 상승).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급등, 미국 허리케인 이슈 등도 잠재적인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자극한 영향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하지만 고금리의 누적효과,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및 경기 모멘텀 둔화 자체는 현재 진행형인 만큼, 골디락스, 11월 동결이 현실화될 확률은 낮다고 판단. 단기적으로 연준의 인하 전망에 관련 노이즈들이 개입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당사가 제시했던 경로인 “선제적 대응 성격인 연내 총 50bp 인하(11월, 12월 각각 50bp) + 미국 소프트랜딩”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9월 고용 서프라이즈에 따른 침체 불안 완화, 외국인과 기관의 장중 순매수 전환 등에 힘입어 반도체, 이차전지, 금융 등 기존 주력 업종들의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 마감(코스피 +1.6%, 코스닥 +1.6%).

금일에는 미국 금리 상승 부담,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타격 우려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전일 급등 분을 되돌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장중에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의 주가 및 수급 변화, 중국 증시를 둘러싼 아시아 지역의 자금 흐름 등에 영향 받을 전망.

전일 외국인이 장중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수급 상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시켜 주기는 했지만, 그 강도 자체는 크지 않았던 상황. 이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월 -2.8조원, 9월 -7.9조원대를 기록하는 등 연속적인 셀코리아가 10월에도 지속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요인(10월 3거래일 동안 순매도 금액 2,300억원).

사실상 외국인 순매도의 대부분이 반도체(8월 -3.2조원, 9월 -8.9조원, 10월 -0.8조원)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해당 업종의 수급 불안 진정이 관건일 것. 또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된 매매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 일례로, 외국인은 9월 3일 이후 삼성전자를 20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같은 20거래일 중 10거래일만 순매도를 기록한 상황(20거래일간 삼성전자 누적 순매도 금액 9.7조원 v SK하이닉스 2,36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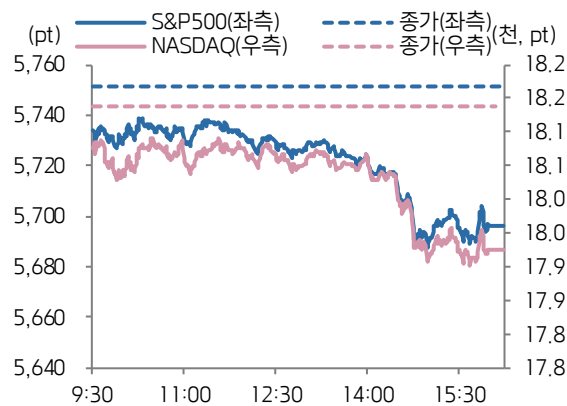
물론 삼성전자가 지니고 있는 한국 증시의 대표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매크로 불안, 중국으로의 수급 로테이션 등으로 코스피 전체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삼성전자 중심의 집중 매도세가 나타난 측면도 있을 것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삼성전자 포함한 반도체 사이클 둔화 우려가 작용한 영향도 있다는 점을 감안 시, 금일 장 시작 전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의 잠정실적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

현재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0월 7일 기준 10.4조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9월초 13.6조원대비 약 3조원 가까이 컨센서스가 대폭 하락한 상태. 다만, 최근 잇따른 주가 하락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의 눈높이를 컨센서스보다 더 낮게 형성시킬 유인을 제공했을 가능성, 외국인의 공격적인 순매도로 수급 빈집 및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필요.

이 같은 수급 빈집과 과매도 영역에 진입한 것은 반도체 뿐만 아니라 코스피 전체 관점에서도 해당될 것. 결국 이번 삼성전자 잠정실적이 컨센서스 레인지에 부합하는 수준만 나오더라도, 코스피 전반에 걸쳐 누적된 부정적인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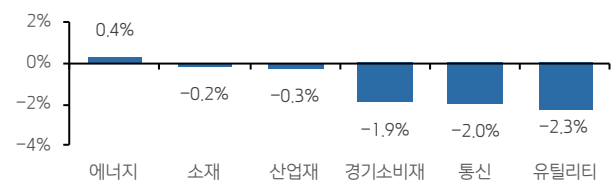
장중에는 중국 증시가 장기 연휴 이후 개장하는 만큼, 아시아 전체 수급 관점에서 한국, 인도, 대만, 일본 등 여타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으로의 수급 이탈이 진행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 외신에 따르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에, 금일에도 중국으로 수급 이탈 현상이 출현할 수는 있을 것. 하지만 9월 23일 이후 약 2주동안 상해종합(+21.9%), 심천(+30.4%), 홍콩항셱(+26.5%) 등 중화권 증시가 단기 폭등을 연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주 중에는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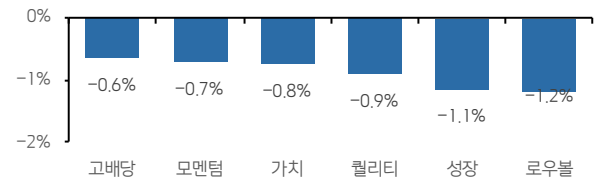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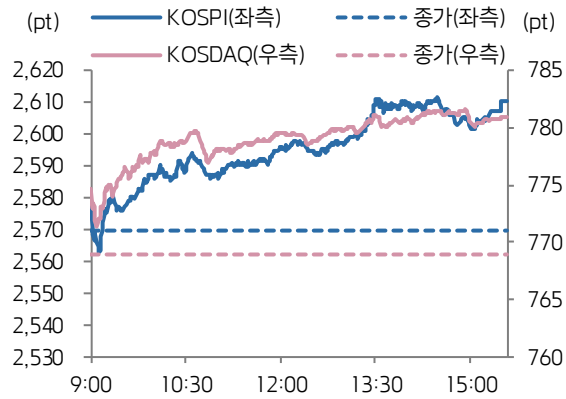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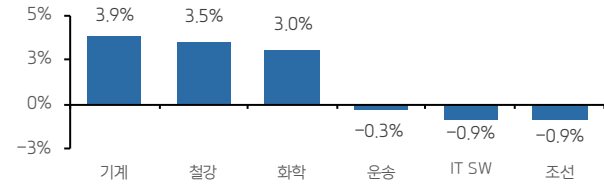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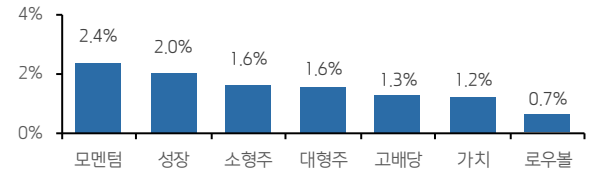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21.69	-2.25%	+15.58%	GM	45.98	+0.66%	+29.05%
마이크로소프트	409.54	-1.57%	+9.5%	일라이릴리	898.40	+1.27%	+54.87%
알파벳	162.98	-2.44%	+16.96%	월마트	79.10	-2.27%	+51.99%
메타	584.78	-1.87%	+65.71%	JP모건	210.93	-0.14%	+26.96%
아마존	180.80	-3.06%	+18.99%	엑손모빌	125.37	+0.43%	+28.62%
테슬라	240.83	-3.7%	-3.08%	세브론	151.12	+0.25%	+4.61%
엔비디아	127.72	+2.24%	+157.96%	제너럴일렉트릭	79.10	-2.3%	+52%
브로드컴	175.08	-0.88%	+58.53%	캐터필러	398.25	+0.29%	+36.36%
AMD	170.97	+0.04%	+15.98%	보잉	155.91	+0.59%	-40.19%
마이크론	102.91	+0.76%	+20.95%	넥스트에라	80.29	-4.2%	+35.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10.38	+1.58%	-1.69%	USD/KRW	1,344.50	-0.36%	+4.39%
코스피200	347.34	+1.64%	-2.97%	달러 지수	102.49	-0.03%	+1.14%
코스닥	781.01	+1.56%	-9.87%	EUR/USD	1.10	+0.02%	-0.57%
코스닥150	1,333.90	+1.48%	-4.27%	USD/CNH	7.07	-0.38%	-0.77%
S&P500	5,695.94	-0.96%	+19.42%	USD/JPY	148.18	-0.35%	+5.06%
NASDAQ	17,923.90	-1.18%	+19.4%	채권시장			
다우	41,954.24	-0.94%	+11.32%	가격	DTD(bp)	YTD(bp)	
VIX	22.64	+17.86%	+81.85%	국고채 3년	2.957	+13.2bp	-18.8bp
러셀2000	2,193.09	-0.89%	+8.19%	국고채 10년	3.101	+10.6bp	-7.4bp
필라. 반도체	5,196.80	-0.19%	+24.46%	미국 국채 2년	3.995	+7.4bp	-25.5bp
다우 운송	15,782.74	-0.2%	-0.73%	미국 국채 10년	4.026	+5.8bp	+14.7bp
상해종합	3,336.50	+8.06%	+12.15%	미국 국채 30년	4.305	+5.5bp	+27.7bp
항생 H	8,330.85	+2.14%	+44.42%	독일 국채 10년	2.256	+4.6bp	+23.2bp
인도 SENSEX	81,050.00	-0.78%	+12.2%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4,969.71	+0.3%	+9.91%	WTI	77.14	+3.71%	+9.19%
MSCI 전세계 지수	843.72	-0.43%	+16.06%	브렌트유	80.93	+3.69%	+5.05%
MSCI DM 지수	3,678.75	-0.53%	+16.08%	금	2,666.00	-0.07%	+23.42%
MSCI EM 지수	1,183.78	+0.38%	+15.63%	은	32.00	-1.2%	+32.87%
MSCI 한국 ETF	63.02	+0.51%	-3.83%	구리	456.65	-0.16%	+17.38%
디지털화폐				BDI	1,928.00	-0.67%	-7.93%
비트코인	63,009.26	+0.62%	+48.23%	옥수수	426.00	+0.29%	-15.39%
이더리움	2,441.41	+0.11%	+6.97%	밀	592.50	+0.47%	-11.43%
				대두	1,034.00	-0.36%	-17%
				커피	244.65	-4.93%	+29.9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서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